
노인의 여가생활과 공공문화서비스: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손동기¹⁾

생활환경 개선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개인의 평균 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해 은퇴 이후의 삶, 즉 노후가 길어지면서 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예가 사회적으로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노인세대들은 노후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미흡한 상황과 ‘즐거움’에 대한 문화가 결핍되어 있는 세대이기에 이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종합복지관의 현황 고찰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노인 공공문화서비스의 경험자들의 실제적인 경험, 인식 및 태도, 그리고 반응(réaction)을 통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여가를 즐기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자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공공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정책의 대상자 혹은 수혜자들의 문화적 특성을 잘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노인세대의 문화특질(cultural trait)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공공문화서비스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접근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공공문화서비스에 대한 상황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노인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양적연구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고, 실제 노인들의 노인 공공문화서비스와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의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는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 공공문화서비스, 노인종합복지관, 질적방법론, 여가생활, 삶의 질

1)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초빙연구원

I. 서론

한국사회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여가시간의 증가, 소득수준의 향상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문화적 욕구는 경제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적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김옥, 2012). 국민들의 문화향수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역할도 크게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공공문화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용호성, 2012, 현택수, 2006, 정갑영, 2005).

한편 '나이 들어간다는 것(aging)'은 누구나 겪는 당연한 과정이다. 한국은 최근에도 환갑, 고희, 희수 등 큰 잔치로 장수(長壽)를 축하할 만큼 오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해왔던 문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전과 같이 오래 산다는 것을 더 이상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반대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생활환경 개선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개인의 평균 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해 은퇴 이후의 삶, 즉 노후가 길어지면서 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사회적으로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노인세대들은 노후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미흡한 상황과 '즐김'에 대한 문화가 결핍되어 있는 세대이기에 이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49%로 바로 아래의 호주 25.7, 멕시코 25.6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다.²⁾ 노인빈곤율 뿐만 아니라 노인의 자살률 또한 OECD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제 노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오랫동안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2015년에 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는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 범주에 넣었다.³⁾ 이처럼 개념상으로는 현재 노인은 문화복지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노인들의 일상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실천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노인들의 문화향유를 통한 복지 증진을

2) 반면 OCDE 통계에 따르면 아동 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데 18세 미만은 약 7%만이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14의 절반에도 못미칠 정도로 낮다. 18-25세 청년층도 OECD 평균 12%보다 낮은 9%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에 비하면 거의 4배에 가깝게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http://www.oecd.org/social/society-at-a-glance-19991290.htm> (2016년 11월 28일 검색)

3) 제14조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조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윤소영(2016: 81, 재인용)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노인이라는 고정관념 혹은 문화공급이 곧 문화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책의 기초는 그 정책의 취지가 전혀 수요자 중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서우석 외, 2013; 김남국, 2010). 이러한 정책의 불합리성 때문에 정책 제공대상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공공정책이라는 비료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문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를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공공문화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노인세대의 문화특질(cultural trait)에 대한 고려가 없이 노인들을 다양한 욕구와 경험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해왔다(조현성, 2005; 정정숙 외, 200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이 어떤 여가력을 가지고 있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가가고자 했다. 특히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공공문화서비스에 대한 경험자들의 실제적인 경험, 인식 및 태도, 그리고 반응(réaction)을 통해서 현재 공공문화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의 소지를 혹은 문제를 발생 시키는 다양한 메카니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상황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노인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양적연구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고, 실제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의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1. 조사 및 분석 방법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문화서비스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의 대상이 되는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그들의 현실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실제 당사자의 입장에서 현재 공공문화 서비스 이용에 있어 어떤 애로를 겪고 있으며 어떤 변화를 희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노인들의 문화욕구를 실증적으로 반영

4) 본 자료와 분석은 2016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시행한 ‘노인의 문화즐김’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본 연구자가 직접 시행한 FGI 내용과 분석을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노인들의 공공문화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분석하였다.

인터뷰에서 주요하게 다룬 내용은 첫째, 노인여가활동의 의미와 가치, 둘째 공공문화서비스를 통한 노인여가활동의 현실과 애로, 셋째 공공문화서비스를 통한 노인여가활동의 한계와 개선방향 모색에 관한 것이었다.

인터뷰는 통상의 질적연구에서의 심층인터뷰 소요시간보다 훨씬 적게 소요되었다. 왜냐하면 인터뷰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일상에서의 여가활동 혹은 공공문화서비스를 통한 노인여가활동 경험에 따른 인식의 변화에 대한 개인별 심층면접 형식이라기보다는 공공문화서비스를 통한 노인여가활동의 실제적인 제도 적용에 대한 의견청취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현 제도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는 좀 떨어지지만,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했다.

2. 질적방법론 연구참여자 구성

질적연구방법의 장점은 연구주제에 대한 기존의 이론이나 개념의 틀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과 이해가 가능하다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방법론 중에서도 심층인터뷰를 3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그룹에 대하여 FGI(Focused Group Interveiw)를 2016년 8월 31일에 실시하였다. 한편, 조사 당시 60세 이상으로 노인공공문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과 곧 노인에 편입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노인문화복지 관련 활동지원기관의 안내자(gatekeeper)의 도움을 받아서 상기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자가 샘플링 대상을 추천받는 과정을 거쳤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FGI 참여자 모두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개요를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진은 [연구참여 동의서]에 찍힌 인터뷰 철회요청 가능성, 녹취할 것과 가필 수정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한다고 한다고 하는 싸인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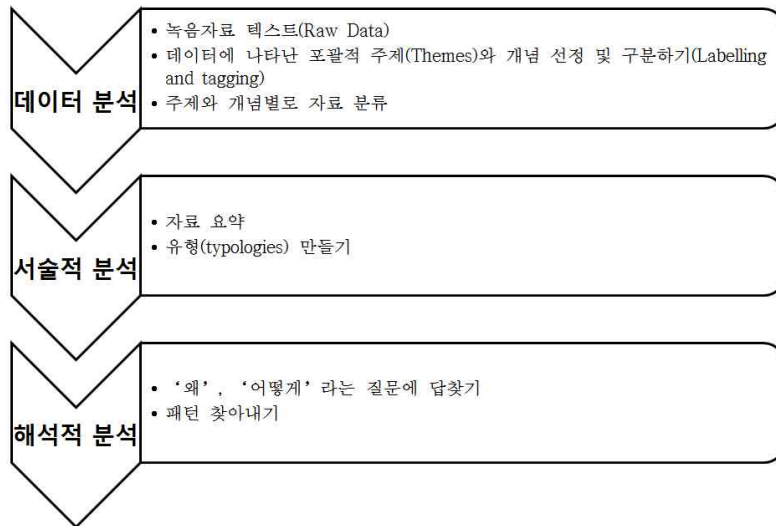
표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개요

| 번호 | 성별 | 연령 | 경제상태 | 건강 |
|----|----|----|------|----|
| A1 | 남 | 77 | 중 | 보통 |
| A2 | 여 | 77 | 상 | 보통 |
| A3 | 여 | 73 | 상 | 보통 |
| A4 | 여 | 70 | 상 | 양호 |

| | | | | |
|----|---|----|---|----|
| B1 | 남 | 73 | 상 | 양호 |
| B2 | 남 | 74 | 상 | 양호 |
| B3 | 남 | 74 | 상 | 양호 |
| B4 | 여 | 73 | 중 | 양호 |
| B5 | 여 | 71 | 상 | 양호 |
| B6 | 여 | 66 | 상 | 양호 |
| C1 | 여 | 58 | 상 | 양호 |
| C2 | 여 | 60 | 상 | 양호 |
| C3 | 여 | 59 | 하 | 양호 |
| C4 | 남 | 61 | 중 | 양호 |
| C5 | 남 | 61 | 상 | 양호 |
| C6 | 남 | 61 | 중 | 양호 |

3. 분석방법

수집된 녹음자료를 텍스트로 필사하여 이를 원자료로 사용했다. 자료의 분석은 질적내용분석 (approach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통해서 이뤄졌다. 즉 텍스트에 겉으로 들어나는 (explicit) 사용된 주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핵심 사고와 개념을 구분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인터뷰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연구질문에 따라 핵심내용을 추출하고 추출된 내용들을 상위 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이후 구분된 사고와 개념을 서로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카테고리 작업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이라든가, 내면의 목소리가 지니고 있는 이면적 의미를 찾아내는데 주된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된 초점은 연구질문에 대해 연구참여자의 경험, 인식과 태도, 반응 정도를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범주는 현실적 여가활동의 애로, 여가활동 관련 현실 제도에 대한 불만,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과 욕구 등에 대해서도 분류하여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



4. 분석결과

1) 노인여가활동의 의미와 가치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노후에 겪게 되는 4고(苦)로 병고(病苦), 빈고(貧苦), 무위고(無爲苦), 고독고(孤獨苦) 중에서 를 잘 대처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여가 활동이 주는 장점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노후에 찾아오는 소외와 고독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여가활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A1)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은퇴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아주 막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막상 은퇴 이후에 봉사도 하고 여가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나 즐겁고 해방감이 느껴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일을 그만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하던 일을 그만 뒀을 때는 절망감이 들고 앞으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일을 털고 보니까 오히려 해방감도 느껴지고 좋아요. 물론 수입은 줄어들었지만은 봉사도 할 수 있고 아주 편안하게, 여유있게, 쪼들리지 않고, 쫓기지 않고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A4) “퇴직을 막상 하니깐 정말 못살겠더라고요. 무료해져서. 그래서 문화센터 가서 시간.. 뭐 9시부터 좌우간 취미가 있거나 없거나 시간을 쭉~ 했어요....뭐 이것저것 좌우간 되는대로 다 했어요. 지금은 가곡반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무료함을 그때부터 해소했었어요. 가곡반에 오는게 꼭 진정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너무 기대되요....

지금은 누가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하면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지금 현재가 만족하고, 현재가 좋아요.”

A2) “우리는 지금 전부 악보를 다 암기에요. 지금은 우리가 20-30곡 정도는 그냥 딱 나와요. 처음에는 이 노인들한테 다 외우라고 한다고 투덜거리는데 치매 안 걸리려면 외워! 외워해서! 그 치매소리에 그냥 해서들 다들 하는데 너무들 잘해요.”

A3) “서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집에 있으면 사람이 자꾸 늘어지고, 눕고 싶고, 벽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C3) “시간이 주어지니까 여가활동을 즐길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여가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봉사하면서 그게 만족감은 주고 행복감을 줘요.”

C4) “예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표현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잖아요. 제 어머니가 지금 아흔 살이신데 지금 와서 하모니카 입문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중급으로 올라 가셨어요. 덕분에 당신도 모르시게 폐활량이 좋아지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수요일, 금요일에는 노래교실 오셔서 김혜자 노래 배웠어요. 그 자체가 힐링이 된다는 거죠.. 그게 행복한 거죠.”

특히 여가활동에 대해서 젊을 때와는 다른 인식을 여가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어지는 여유를 통해서 노후를 즐겁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B6) “이것저것 배우는 게 많아지니까 나이를 먹어서도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아요. 때문에 너무나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어가면서도 늙는 세월 탓 할 것도 없고 그냥 즐거운 거죠, 기쁘고, 매일매일이 즐거운 거죠.”

A3) “제가 직장에 다닐 때 하던 것은 여가활동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B1) “사실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먹고 살려고 하는 쪽에 비중이 더 많이 가죠...노인으로서 내가 즐거운 때는 첫째, 시간이 많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누가 뭐 결정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자기시간이야! 나 혼자 혼자 결정하니까 그만큼 편하고, 즐겁죠.”

노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들도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다는 것을 강

조했다. 과거에는 노인이 되어서도 사회적·경제적 환경들이 노후의 여가활동을 실천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자신과 같은 현 노인세대는 이전의 세대와는 다르게 사회적 의무 혹은 가족의 의무에서 좀 더 일찍 자유로워질 수 있어서 좀 더 활동적이고 행복한 노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젊을 때 하지 못했던 자기실현도 여가활동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

CI) “여가시간이라는게 예전에는 자식이 많다보니까 나이 60이 되도, 70이 되도 뭐.. 자식이 10, 12, 8, 4 이렇게 되니까 여가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세대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나, 둘만 낳아서 모든 게 일찍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절로 여가시간이 주어졌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그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우리가 또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걸맞은 그것들을 하고. 저희 엄마도 90이신데 항상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 하시고 하시면 또 항상 행복해 하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90이든, 70이든, 60이든 50이든 욕구는 다 똑같구나. 나이하고 상관없이 없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CI) “행복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늦게라도 피아노 같은 것을 하고 싶었거든요. 10대에도 시도를 했었고, 20대, 30대, 40대, 지금 50대 마지막이라고 선생님께 나 이번에 의지 꺾이면 더 이상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행복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젊었을 때부터 이루고 싶었던 것을 다시 시도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의지를 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것.”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뷰에 응한 노인들이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이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건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I)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력이 있어야하고 건강해야해요. 2가지가 일단 있어야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즐겁지도 않고, 활발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노후 대책을 세워놓은 사람은 즐겁게 밖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 합창단보면 그래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부유하지는 않지만 자기 쓸 것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생을 마감하는 시기로 인식되던 노후가 이제는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고, 또 이를 수 있는 시기로 인식되면서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공공문화서비스를 통해 본 노인여가활동의 현실과 어려움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특히 노인이 되면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축소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소외와 관련해서 새로운 ‘인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주어진 막대한 자유시간’으로 인한 무료함 혹은 소외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노인들을 위한 공공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의미는 매우 컸다. 즉 어떤 여가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노인들이 자신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만으로도 노인복지관의 의미와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B1) “저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지금이 내 생에서 가장 즐겁다고 합니다. 걱정이 없으니까. 죽는 것은 그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옛날에는 안 먹고 살고, 돈 벌어야한다고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많았죠. 그런데 노인들이 문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알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을 함으로써 얻는 게 커요. 사실 우리 복지관이 없으면 아마 이 회원이 만 명이 넘는데 이 중에 아마 대다수는 치매 걸려 있거나 조금 이상해졌을 거예요. 복지관의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큼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안 살면 노인이 시간이 짧잖아요, 백수 아니에요 백수! 그러니까 이상한 병이 오거나 잘못하면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외롭거나 그렇게 되어서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배우는 것 그게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하는 차원에서 노인들에게서 복지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B2) “사람이 살다보면 계모임 많이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다보면 친구, 계모임. 계모임도 점차 풀어지고 없어져요. 그리고 직장동료들도 퇴직을 하고 오래되면 점차 연락이 오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데 복지관 여기 와서 보니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두 선생님도 여기에서 사귀고. 여기 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말을 못해요.”

A1)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과는 다른 게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모이면 너무 즐겁고 그래서 만나기만하면 헤어지기 싫고 그래요.”

C4) “외국에 가끔 나가봐도 우선 우리나라처럼 기가 막히게 의료보험 잘 되어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동네에 이렇게 건물(노인종합복지관) 지어놓고, 한 프로그램으로 네 달에 2만 5천원이면 미국 돈 4불입니다, 그리고 밥 한 끼가 2500원인가요? 2000원. 2불이란 말이예요.... 물론 불평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싸게 밥 주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컴퓨터 같은 것도 학원 같은 곳에 가면 15만 원인가 그렇단 말

이에요. 지금 이렇게 에어컨 뽕뽕 틀어주는 곳에서 네 달에 2만 몇 천원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정도면 괜찮다. 좋다!”

한편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여가시설의 경우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때문에 점차 사회의 인구고령화가 심화가 되면서 노인인구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특성에 맞는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의 부족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B3)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따라가지 못 해. 여기는 노인복지관이거든요.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수준과 실력이 비슷하고, 젊으신 분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춤을 추는데 그 사람들은 2-3번이면 따라가는데, 저는 10번을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도태되고 나오게 돼요.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의 제일 어려운 점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으로 몰려요. 여기서 뭐 공간이 없어요. 특히 휴식공간이 없어요.”

B6) “예산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20명씩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거를 못하시는 거예요. 반을 만들어야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또, 식당에서 있죠. 저는 식당에서 밥을 잘 안 먹거든요? 왜냐하면 줄 서는데 너무 너무 길고 싫어서. 줄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그게 싫어서 그냥 밥 안 먹고 가고. 그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B4) “제일 부족한 게 자율이용 프로그램이에요. 탁구장, 이 아래에는 지하에 그러니까 공 가지고 노는 곳은 다 부족해요.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처음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물러나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자꾸 여기에서 학기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초급반 회원들이 많아지면서 먼저 배운 사람들이 하면 그 사람들이 할 곳이 없잖아요. 때문에 오히려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해서 유능감을 느끼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때문에 단순히 즐기는 여가활동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인터뷰에 응한 많은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강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것을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에 대한 자신에 대한 유용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자신의 유용감을 갖고자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인터뷰에서 나타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문화는 현재의 노인세대 보다 좀 더 활동적이

고,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여건상 경제활동이 어렵다면 자신들의 자유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가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거나 쾌락적 유흥을 즐기기 위함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때문에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들에게 배움의 장소로도 많이 여겨지고 있다.

C4) “노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과목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배워요. 배울 곳이 없었어요!”

C3)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전에는 환갑잔치, 칠순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은퇴는 50 중반이면 다 해요. 어디 놀 곳이 없는 거예요. 천상 복지관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같은 경우에도 제가 재취업 할 수 있으면.. 취업하고 싶어요. 재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일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조금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봉사인거예요. 노느니 나와서 조금 건강할 때 봉사를 하자 싶어서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뭐든 경제성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한다 이거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50-60대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도 많아요. 어찌다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하고 기부하고 말지, 내가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많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 달에 내가 4-5만원 기부하느니 우리가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일당 4-5만원인데, 한 달에 4번을 나오면 20만원, 15만원인데 이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제 자신을 위로를 해요.”

B3) “지금 노인복지가 우리나라처럼 잘 되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004년도에 직장 관두고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하다가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에 쿠키를 붙여서 사진을 촬영하러 다니고, 뭐 그러다보니 입상도 하고, 장려상도 받고 이랬는데. 그게 바탕이 되어서 사진으로 봉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뭐든 열심히 배우다 보면 자기만족을 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인식하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노인들을 위한 공공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인식은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하기 전과 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좋은 경험을 하신 노인들은 다른 노인들도 함께 좋은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B4) “즐겁게 논다는 것도 굉장히 저희를 자신한테도 이롭지만요, 국가적으로도 노인들이 아픈 것보다는 즐거워서 안 아프면 더 이익이잖아요. 그런 면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하구요. 개인도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파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전 단학기공

그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약해보여도 정신력도 강해지고, 강단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거 안하는 날은 약간 습도 차고 그래요. 그것을 여기서 배워서 이렇게 건강 유지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다른 분들도 그래요. 그걸 하루 안 나오면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오니까 좋다고들 하시니까 꼭 그 반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요. 요가 같은 것도 요가학원에서 배우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학기에 2만 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요가하시는 분들도 요가처럼 좋은 게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각자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이미 다들 우리 여기 복지관 개관한 이래로 한 회해보고, 두 회해보고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거의 다 찾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복지관이 저희들한테는 진짜 천국이죠, 너무 좋고. 그런데 여기도 못나오는 노인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A3) “그런데 그 성적이 내성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그런 분들은 그런데. 한 번만 조금 이렇게 본인이 “아, 즐겁다!”하는 케이스만 만들어줘도 나와요. 근데 지금 그걸 몰라. 접해보지를, 부딪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한 번만 끌어내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어느 계기가 되어서 그거 한 번만 끌어냈으면 좋겠어요.”

한편 최근에는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지역에 정착을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노후에 고립이 더욱 심화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들이 새로운 지역 혹은 커뮤니티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점으로써의 의미도 갖는다.

C2) “전 남편이랑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어요. 애도 다 컸고. 지방에서는 남편 동료 부인들이랑 거의 주 3일정도 골프를 치고 놀았어요. 지금은 제가 서울에 왔고, 남편은 아직 지방에 있거든요. 딱 오니까 그 손쉽게 할 수 있는 골프를 여기 와서 다시 또 친구를 사귀어야하고.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밖에 안되고. 혼자 계속하기 힘들고 해서. 복지관에 봉사를 하러 오게 됐어요. 보니까 운동할 때는 운동하는 대로 즐겁고, 가족을 만날 때는 만나는 대로 즐겁고, 그냥 복지관에 봉사 오면 또 즐겁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공공문화서비스를 처음 체험하고, 지속적 이용을 통해 여가활동의 일상화를 이루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문화복지시설에 대한 홍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처럼 노인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여가 프로그램과 충분한 공간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노인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또한 매우 시급한 문제로 보였다.

C1) “저도 뭐지 노인복지관에 가면 꼭 노인 자가 들어가서 확 늙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B5)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부부가 여기 노인복지센터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다니는데요. 저는 이제 재미있게 다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가면 노인친국이라서 싫대요. 나도 노인인데 노인들하고 하루종일 어울리니까 그 자체가 자기는 싫어서 자기는 안 다녀요.”

B3) “복지관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왜 안 나오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3) 공공문화서비스를 통한 노인여가활동의 한계와 개선방안 모색

현재 노인들을 위한 공공문화서비스는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가계약요인 중에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일 것이다. 하지만 인터뷰에 응한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들도 많고 이들 또한 함께 공공문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노인들을 위한 공공문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은 정말로 경제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계층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은 현재의 이용요금에 대한 것도 충분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터뷰에 응한 노인들의 대다수가 노인여가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차별화가 중요하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좀 더 집중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인들이 더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A3) “저는 이제 노인들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A2) “그런데 너무 공짜로 하니까 나태해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어느 정도만 하지.”

C3) “여기 노인복지관에 오는 분들이 2000원 어치 밥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2000원 어치 밥을 먹고, 어디를 가느냐면 일하러 가요. 거의 반은 여기 프로그램 이용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2000원 밥 먹고. 밥도 조금 먹지 않

고 많이 드세요! 하루 배를 채워야하니까. 그렇게 드시고 나서 나가서 돈을 번단 말이야. 저는 여기서는 조금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프로그램 하러 오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을 계속하다보니까 마주치는 얼굴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보면 이 복지관에서 복지혜택을 누리는 게 모든 노인분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야말로 어느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와서 프로그램 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또 프로그램하고. 어느 분은 돈이 없으니까 겨우 2000원 식사하고 밥 먹고 나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복지관을 많이 지어준다고 해서 과연 우리 뭐 노인분들을 위해 지어준다. 위해서 해준다 이걸 아닌 것 같아. 복지관보다도 조금 없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놀이문화!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C3) “저는 모든 사람들이 우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예요. 소위 말하면 기초생소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복지관으로 오지를 못해요. 그 분들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 공간을 노인이라고 말씀 드렸지만 지금 여기는 복지관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뤄지잖아요, 즐기잖아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은 즐길 곳이 없어요. 복지관, 주민센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의 수강료는 싸요. 만 원, 이만 원 하니까. 그 안에서 인간관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안에 합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분들께서는. 이왕 프로그램을 짤 것 같으면 이 분들을 위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나.”

한편 현재의 노인 공공문화서비스는 주로 한정된 공간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이 부족한 노인들은 계속해서 소외된 채로 남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는 한국의 노인세대가 노동을 중시하는 세대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경제활동 중에 여가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소극적인 공공문화서비스의 제공은 워낙 정책의 대상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는 있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를 줄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B6) “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 모든 조건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우리 복지관 말고 다른데, 더 소외된 곳. 이렇게.. 손길이 더 많이 안 가는 곳. 그런 곳에도 배움과 즐거움과 그런 것을 줄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운 것도 그런 곳 가서도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편 노인들이 여가활동 참여는 개인적인 즐거움 보다는 함께 즐거움에 있다. 인터뷰에 응한 노인들은 대부분 홀로 즐기는 여가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다수가 함께 하는 여가를 이야기하고 그러한 여가를 했을 때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는 여가활동 그 자체에서 주는 행복도 있지만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즐기는데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크다. 즉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개인적인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 보다는 주변의 혹은 사회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한국 노인들의

여가는 ‘나 홀로 즐기는 여가’ 보다는 ‘함께 하는 여가’가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이들의 여가활동의 유용성을 확인 받을 수 있다면 더욱 노인여가의 만족도는 높아 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9988톡톡쇼’와 같은 정책은 노인들에게 자신들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해주고, 또 자신들의 여가활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A2) “나 자신의, 개인의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나이가 들면 나혼자는 그게 안돼요. 그러면 우울증이 와요. 나 혼자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옆에서 누가 이렇게 잘 한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이 나혼자.. 그건 내 행복이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 살면서 같이 하는 것이 행복이지. 나 혼자서 아무리 기타를 잘해도 누가 옆에서 잘한다! 소리 안해주면 재미가 없는거거든요. 아무리 내 자식이 무엇을 잘해도 “이야~ 너 참 잘한다” 이렇게 북돋아줘야 개가 하려고하지. 개가 신나서 혼자 하는데 누가 옆에서 그런 말 안 해주면 나중에 시들어 버리거든요.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지.”

A1) “9988톡톡쇼 같은 좋은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시고. 여기에서 이제 잘하는 팀이 추려지면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조금.. 행사를 좀 활발하게 해서! 우리는 많이 할수록 보람을 느끼니까 되도록 행사를 많이 나가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노인들이 그들의 자유시간에 자신들의 역량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나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노후가 길어지면서 노인들의 삶의 방식이 다양해짐에 대해서 노인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노인에 대한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1) “퇴직을 하자마자 이제는 내가 갈 길이 뭔가 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다가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분이 딱 눈에 띄었던 말이죠. 나도 퇴직을 하면은 저 활동을 하면 어떨까! 그게 머리에 들어와서 그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나 보니까 그 무슨 복지관에 가서 복지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상담을 하래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보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했죠. 그래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안내봉사를 계속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걸 아는데 더 배워야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 복지관에 가봤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자기가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된다고 해서 선택을 했죠. 그런데 노인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75세가 되면 봉사를 그만둬야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아니다.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데 왜 나이로 자원봉사 참여를 임의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나는 그거에 조금 의아해서 분당 거기에다가 병원장한테도 내가 건의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1년 남았어요, 75세가 되려면. 그러니까 1년 동안만 봉사를 해야 하는데 이걸데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노인 공공문화서비스가 행해지는 장소의 제약에 대한 문제도 언급이 되었다. 즉 현재는 노인(종합)복지센터 혹은 종합복지관 중심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이뤄지면서 급속한 노인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여가를 즐기는데 있어서 또 다른 제약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뷰에 응한 노인들은 현재 한국사회 저변에 깔린 다양한 여가시설을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의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충분한 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활용에서 통합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여가활동 가능 인프라 맵 작성과 이를 연계해서 활용 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운영이 필요하다.

B4) “제 생각에는 어떨 때는 일찍 집에 가면서 이쪽 주택 전시관이 있잖아요. 우리도 빈 건물들이 있던데 거기에다가 포켓볼 대만 몇 개만 더 해도 이렇게 쫓겨 나갈 일은 없을 텐데. 물론 그만 치고 가라는 소리에 가는 것은 아니고. 몰라요.. 저는 성격이 조금 다부지질 못해서 그런지 그런 틈 바구니에서 막 끼어서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냥 나가는 성질인데 가다가 그런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아, 저쪽이라도 지하에 공치는 다이 같은 거라도 몇 개 놔주면 더 할 수 있을텐데!”

반면, 노인들을 위한 문화여가서비스에 있어서 양적인 공급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대상이 되는 노인들의 의견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정책의 수립과 운영과정의 문제가 지적이 되기도 했다.

C4) “저는 솔직히 이와 같이 노인여가를 위한 이야기를 하는 모임 자체가 회의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비슷한 걸 4번째 참석을 했는데 전혀 피드백이 없어요. 제가 어떤 요구사항 혹은 건의사항이 여기서 담당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이 되어도 전혀 달라지는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DSLR 초급이 끝나서 다른 상급반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한 인원이 모이지 않아서 혹은 수강생의 충분한 찬성이 없어서 안된다는 대답만 듣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문제를 노인들이 지적을 해도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담당자의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해요. 가장 많이 듣는 담당자의 대답이 ‘저희가 바빠서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제는 어떤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안하게 되요..”

Ⅲ. 연구 결과

여가정책이 여가시설이나 여가프로그램을 수요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면 그 이후의 단계로 여가정책이 발전해야만 지속적인 수요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가정책의 이용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확장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요하다. 즉 여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수혜자 혹은 이용자들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촉매제로써 여가정책의 콘텐츠의 다양화는 매우 중요하다.

문화접근도는 개인이나 가계의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끼친다면 문화이용도는 개인의 문화에 대한 인식에 따라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때문에 개인이나 가계의 소득수준이 낮다고 해서 문화이용도가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문화이용도는 개인수준의 문화이용에서 문화시설의 공급측면보다는 수요측면에서 문화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이용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국정부의 문화복지정책은 아직도 문화접근도를 낮추는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의 대상자인 향유자 만족도가 낮은 것은 너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문화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미시적으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수요 중심의 측면에서 문화이용도에 접근을 통해서 공공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정책을 연구하면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있다면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을 정책 입안자나 연구자들이 갖는다는 것이다. 즉 문화정책은 문화향유를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목표이지 활동 그 자체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위한 공공문화정책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 ‘할 것’을 만들어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문화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하고, 욕구가 많이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 붐 세대가 노년층에 서서히 들어오면서 이들에 대한 문화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들의 도시 간 이동이 많아지고 있어서 새로운 문화적 취향을 가진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경제활동을 위해서 서울에 머물던 노인들이 은퇴 후 혹은 자식들을 돌보는 의무에서 벗어나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문화적 특성과 취향을 가진 노인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어떠한 욕구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들이 무엇을 좋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정책 연구들이 많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남국(2010).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인권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국제정치논총**, 50(1), 261-284.
- 김욱(2012). **탈물질주의와 한국의 정치변동**. 강수택·박재홍 엮음. 한국의 사회변동과 탈물질주의. 도서출판 오름. 127-155.
- 서우석, 양효석(2013). 문화적 박탈감을 통해 살펴본 문화복지 대상 범위 연구. **한문화정책논총**, 27(1), 165-197.
- 용호성(2012). 문화바우처정책의 쟁점과 방향. **문화정책논총**, 26(1). 99-124.
- 정갑영(2005). 우리나라 문화복지 정책의 흐름과 전망. **문화정책논총**, 17(5). 225-243.
- 정정숙 외(2009). **고령시대를 대비한 문화정책 개발 연구: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현성(2004). **노인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현택수(2006). 문화복지와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6. 101-122.